

추자도! 멸종의 섬? 바람! 바람의 섬 추자도

추자도! 오래전부터 추자도를 찾기 위해 봄을 기다렸다. 때맞추어서 제주에서 고사리 축제가 열린다하여 기회를 잡았다. 새벽 4시대에 일어나보긴 처음이다시피 할 만큼 부지런을 떨고 제주로 향하였더니, 하루가 꽤나 길었다. 제주에서 필요한 사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1시 40분 추자도를 향하여 제주항을 출항하는 한일고속 3호를 탈 수 있었다.

출항하고 한 시간이 40여분이 가까워질 무렵, 멀리 작은 섬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도 섬을 스쳤겠지만 멀미약 덕분인지 배 안에서 잠에 빠져 있어 볼 수 없었다. 배 안에서의 상황은 그냥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똑같은 한일고속페리인데 1호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정도이다.

지도를 뒤져보니 수덕여라는 섬이다. 일명 사자섬이라고도 부르는 모양이다. 우연하게 만났던 낚시 아저씨가 그렇게 불렀다. 바로 이어서 푸랭이섬이다. 바로 그러고 보니 아주 가까이 추자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약 3,000여 명이 모여 산다는 섬 추자도.

길게 늘어선 방파제 너머로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신양리항 뒤로는 알록달록한 지붕이 여느 섬에서나 볼 수 있는 섬의 모습 그대로이다. 저 섬이 제주도라니!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 생각은 섬안에 들어가서 더 자주 하게 되었다.

항구에는 작은 배 몇 척과 완도로 가려는 사람들이 우리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도이지만 제주도와 전혀 다른 모습이 추자도에 왔음을 실감하게 했다. 그러고 보니 추자도는 1994년 8월에 이어 두



사진 1 수덕여(일명 사자섬)



사진 2 추자도의 첫 모습(신양리)

번째이다. 그렇지만 느낌은 처음인 듯하다.

제주에서 만난 기사 한 분이 누구에게 연락을 하면 도움을 줄 것이라 하여 시킨 대로 하였다. 사실은 면사무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준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안 된 바람에 부득이 연락을 한 것이다. 후에 알고 보니 그렇게 안했으면 좀 곤란할 뻔 한 것 같다. 추자도에선 이미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민박할 사람으로, 추자도의 민박 방식은 독특하였다. 일단 목게 되면 무조건 일인당 3만원을 받는다 한다. 거기에는 저녁과 아침이 포함되어 있다(나는 놀랐다. 예초리 간다고 하였더니 할머니가 ‘그럼 저녁은 7시쯤에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는다’는 것이다. 사실 안 그랬으면 곤란한 일이 생겼을 지도 모를 것이다. 미리 저녁을 먹고 왔을 테니). 그 집에 일단 짐을 풀고 예초리를 다녀오기로 하였다. 예초리는 추자도에서 4번째 정도로 큰 마을인 듯하다. 대서리, 영흥리, 신양리에 이어서 예초리 순인 듯하다. 아주 주관적 판단이다.

신양리에서 예초리를 가려면 추석산을 넘어야 한다. 산이라 봐야 높이 156m이니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경사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섬이란 것이 어디나 그렇듯 경사가 급하다. 20분쯤을 걸었더니 이제 예초리가 보인다. 예초리는 항구는 작지만 마을이 예쁘다. 마을 입구에는 노랗게 유채꽃이 피어있고 그 뒤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마을, 그리고 멀리 보이는 다도해 등이 어우러져 아름답다. 물론 마을의 전경을 카메라에 담지 않고는 지나기 어렵다. 새로 장만한 카메라와 렌즈 덕분에 방파제 끝의 등대부터 마을까지 모두 한 컷에 담을 수 있었다.

마을 안에 들어와 보니 온 보람을 절로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성벽을 쌓은 쌓아놓은 높은 돌담이 그러했다. 돌담은 아주 튼튼하게 쌓아져 있다. 제주의 돌담이 좀 엉성하게 쌓아놓은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순간의 방심으로 해녀 할머니 몇분을 놓친 것이 아직까지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진 3 예초리 전경



사진 4 예초리의 돌담

어쩌면 이 아쉬움이 평생 같지도 모를 것 같다. 곧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하였지만, 다음날까지도 그 다음날에도 볼 수 없었다. 길거리에는 어느 마을이나 그러듯 뭔지 모르는 플라스틱 통이 곳곳에 놓여있다. 물, 아니면 소금, 아니면 멸치가 들어 있을 것이다.

마을을 누비기 시작하였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은 물통이다. 동네 사람들은 그게 뭐가 볼 것이라고 사진을 찍냐고 하지만, 우리에게겐 신기하였다. 사실 추자도를 찾은 가장 큰 이유가 이것 사진 찍으려고 간 것이다. 텅으로 지붕도 인상적이다. 지붕을 보니 역시나 바람이 강한 섬이구나 하는 것이 보일 듯하였다. 지붕이 깔끔하였다. 어디를 보아도 군더더기가 하나 없다. 바람이 강하니 군더더기가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 같다. 지붕 어디로도 바람 한 점이라도 들어갈 만한 틈조차도 여유를 주지 않았다. 제주도보다 더 심한 모습이다. 물론 나의 제주도는 중산간이긴 하다.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삼치가 한 마리씩 들려 있었다. 제주에서 추자도를 소개한 아저씨가 떠올랐다. 추자에 가거든 삼치



사진 5 예초리 가옥과 물통



사진 6 군더더기 없는 예초리 가옥의 지붕



회를 먹고 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린 민박집 밥을 먹어야 하니 삼치회를 먹긴 어려울 것 같다.

마을에서 빠져나와 바닷가로 다가가니 그곳에도 높은 성벽이 쌓여 있다. 물론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한다. 방파제 안에는 작은 고깃배 스무 척 정도가 쉬고 있었다. 마을 회관 앞에는 상추자의 대서리까지 가는 공용 버스가 사람들을 내리고 갈 사람을 태우려 하지만, 이제 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30여 분을 걸었더니 마을을 거의 다 뒤져본 것 같다. 다른 길을 택하여 마을을 떠나는데 마을 끝쪽에 공동 우물이 역시 인상적이다. 신양리로 가는 길은 역시 고갯길인데, 곳곳이 낚시터인 듯하다.

꽤나 걸은 것 같은 데도 이제 두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어쨌거나 이제 쉬어야 할 만큼 다리가 힘들다. 나는 제주도 사람이라 멸치젓을 아주 좋아한다. 추자도이니 저녁상에 멸치젓 짬은 분명 오를 것이다. 기대가 된다. 아까 집을 떠나기 전 할머니에게 저 풀이 맛있겠다고 했던 것이 떠오른다.

저녁상은 진수성찬이었다. 아까 말했던 풀은 말할 것도 없이 텃밭에서 키운 온갖 채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아까 보았던 삼치회까지. 얼른 소주 두병을 사러 보냈다. 맛깔스러운 멸치젓도. 그리고 밥에 들어 있는 검은 콩이 더욱 밥맛을 돋울 것 같다. 모든 상황이 맞는 저녁이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여든의 나이에도 마치 60대로 보일 정도로 정정하셨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너무도 길었던 하루였지만 순간처럼 지났다. 사실 하루를 돌아보면 다른 날의 3일쯤은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내일 상추자를 둘러보고 완도로 간다면 최상의 일정이다. 아마도 서울에 돌아가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을 것이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제주도로 가야 한다. 추자도에 오는 배는 완도에서 아침 10시 10분



사진 8 예초리 포구



사진 9 예초리 공동 우물의 하나